多e로움으로 고물가 부담 잡는다

익산시, 가입자 20만명 돌파… 전국 최대규모 20% 할인 지역화폐 혜택

익산지역화폐 '다이로움'이 고물가 시대 전국 최대 규모의 할인 혜택으로 가계 부담을 줄여주며 생활 속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익산다이로움 가입자 수가 이달 5일 기준 20만명을 돌파해 시민 3명 중 2명 이상은 익산다이로움을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익산다이로움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국 최대규모로 20% 할인 혜택을 지급하며 2020년 1월 발행 이후, 3년여 만에 누적 가입자 수 20만명을 돌파하며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또한 올해 1월 발행액은 474억원이며 누적 발행규모는 1조 1545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시는 올해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등에 따른 고물가 대책 일환으로 개인당 다이로움 충전 한도를 월 100만원과 충전금액에 따라 최대 20%할인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50만원 한도 내에서는 인센티브 10%와 소비촉진지원금 10%를, 100만원까지는 인센티브 5%와 소비촉진지원금 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50만원 사용 시 10만원을, 100만원인 경우에는 1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착한페이 앱을 통해서 또는 지역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다이로움 카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다이로움은 재정투입 대비 4배 이상의 경제효과가 입증되었고, 고물가 시대 시민생활 필수품이 되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매개충 우화 전 방제 총력

군산시는 9일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제사업은 지난달 말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이 월동하는 오는 3월 말까지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약15억원을 투입해 실시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관내 지역에 대해 9개 사업구로 나누고 정읍국유림관리소와 협업방제를 통해 매개충 우화시기 이전인 3월 말까지 감염목(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등 복합방제를 실시한다. 이후 발생되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이후 하반기 방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대상지역 368㏊에 대해 감염목(고사목) 5,861본을 제거하고 45,180본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했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방제단을 활용해 감염목 발생지 주변과 관내 소나무림에 대해 정밀 예찰실시, 감염목을 조기 발견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 방제 및 작업품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소나무 잎이 붉게 변하고 처짐 현상이 있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증상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익산시는 9일 궁웨딩에서 제20대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종오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전임 여성단체협의회장 및 개별 단체회장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제19대 협의회장으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박정순 이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강성자 신임회장에게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봉사활동 및 다양한 실천운동을 주도하여 저소득 가정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익산여성단체 및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따뜻하지만 열정적인 마음을 익산시 발전에 결집시켜주기 바란다"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강성자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모든 여성단체와의 소통 및 여성의 역량강화와 권익향상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여성단체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되도록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개별 단체 및 9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전입 시민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실시

군산시는 9일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타지역에서 전입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시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위한 전입자 인센티브 제공사업을 통해 무료 건강검진으로 간 기능,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검사 등 총 12종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혈압, 체위 검사, 흉부 방사선 폐결핵 검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진료 의사 건강상담 증상에 따른 맞춤형 처방도 가능하다.

검진 대상자는 시 전입 후 6개월 이내의 18세 이상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시민이면 가능하다.

검진 시 준비물로 일반 전입자는 전입신고 날짜가 표기돼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12시간 공복을 유지해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족센터(센터장 김종남)는 지난 8일 호산부인과(원장 이창호)와 시민 건강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문화가족 진료이용권 100매(500만원 상당) 전달식을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진료이용권 후원

익산시가족센터 · 호산부인과, 시민 건강 증진 협약

익산시가족센터(센터장 김종남)는 지난 8일 호산부인과(원장 이창호)와 시민 건강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문화가족 진료이용권 100매(500만원 상당)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이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호산부인과는 여성건강 전문병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의 의료 편의와 모성권 보호를 위해 더욱 다양한 지원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호산부인과는 다문화가족의 건강을 위해 진료이용권 100매(50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진료이용권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여성 건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창호 호산부인과 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의 건강을 위한 나눔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익산시가족센터 김종남 센터장은 "익산시 다문화가족의 건강을 위한 관심 어린 진료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http://iksan.familynet.or.kr) 또는 익산시가족센터 대표전화(☎ 063-841-604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보건소, 노인의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군산시보건소는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한 노인의치(틀니)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5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평생의 영구치 손실로 저작(음식물을 섭취해 씹는 과정)이 어려워 의치 보철물이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치(틀니) 제작을 선뜻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개인의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며 신청방법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모집기간(2.13.~2.17.) 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어르신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내소해 구강검진 및 상담, 심사 후 노인의치(틀니) 최종 선정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어르신은 오는 3월부터 희망하는 관내 치과의원에서 본인 구강상태에 맞는 의치(틀니)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분들의 구강건강 삶의 질을 높이고 앞으로도 노인의치사업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차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의치 담당자(전화 454-5846)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추진

익산시가 시민의 재산권 확보와 디지털 지적화를 위해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지구를 지정한다.

시는 올해 와리1, 황등3, 황등4, 동고도리지구 2,507필지(808천㎡)를 대상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에 대한 실시계획를 수립·완료하고 주민의견 공람·공고 절차를 밟고 현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구지정은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지적재조사는 토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현실 경계로 바로잡고 100년 넘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정책사업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사업 설명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8일 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46개소 센터장 및 종사자 60여명이 참석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이번 설명회는 올바른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이용아동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건실 아동정책과장은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센터장 및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이재춘기자